

## 토종 발작물 재배 및 수익 창출방안

김혜영\* / 고운내농장 대표

### 연구 필요성

‘땅 없이 귀농해서 농사를 생태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자급하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할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본 연구는 시작한다. 도시 소비자에서 이젠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들을 제철에 생산해서 먹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생태적인 농법으로 키우기 위해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찾아보고, 가정에서 계절별로 필요로 하는 작물을 찾아보니 결론은 ‘토종작물’이었다. 토종작물은 이 땅의 자연환경에 이미 잘 적응되어 있고,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하며, 병충해에도 씨앗을 남길 수 있는 정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단작화와 화학농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토종작물을 택했다.

귀농자는 늘어나는데, 청년 농부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허나 귀농을 원하는 많은 사람은 소비 생활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을 원할 것이다. 함께 흙을 일구면서 건강한 땀을 쏟고, 생명을 품으면서 느낄 수 있는 창조의 기쁨과 생명의 신비로 삶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믿는다.

\* 김혜영: 되살이공동체, 남도토종자원연구회 등 활동을 하다 2016년 강원도 양양으로 이주하면서 1,000여 평의 밭에 토종작물을 중심으로 80여 가지를 재배하며, 전국 10여 가정과 꾸러미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시범 농장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자립농, 토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보고, 나아가 토종 꾸러미를 하여 생계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1. 농지 확보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의 기본 경작 면적은 1,000㎡(300평)이다. 최소 1,000㎡가 있어야 농업 경영인으로 등록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기에 1,000~3,300㎡ 넓이의 밭을 적정규모로 보았다. 연구를 위한 경작지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의 밭 3,276㎡(992평)이다. 경작지는 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집과 5년 기한의 교환 형식으로 임차하였다.



농지 전경



위성 사진

[그림 1] 연구 농지

### 2. 재배 작물 선택

본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종씨앗들은 전라남도에서 재배, 보존되었던 것이라 강원도에서 적응, 채종하기까지 3년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행히 영동지방 기후

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적당한 해풍도 여러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 주었을 것이며, 가뭄에는 지하수로 대처하였다.

토종작물이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배뿐 아니라 다음 해를 위한 채종도 필수다.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고 채종한다는 것이 일반 농가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밭의 생태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배한 작물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관련한 토종씨앗 씨갈무리 일기는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표 1> 토종작물 파종시기 일람표

분류	작물 (파종방법)	특징	시기(월)	
			씨넣기	씨갈무리
잎 채 소	상추 (직파)	가을 파종한 것으로 채종하면 좋다. 장마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3, 9	7
	아욱 (연중 직파)	무릎 높이로 올라오면 줄기째 베어 먹는다. 흰 줄기 아욱은 말려서도 먹는다. 자색 아욱은 말리면 떫은맛이 난다.	3, 5, 7, 9	8
	부추 (직파)	파종 또는 포기 나누기로 재배가능하다. 김매기를 해야한다.	3	10
	숙갓 (직파)	비옥한 땅에 심는다. 장마철과 겹칠 수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3, 9	6
	대파 (직파, 육묘)	비옥한 땅에 심고, 9월까지 세 번 베어 먹는다. 겨울을 나고 이듬해다시 올라와 저절로 자라기도 한다.	연중	9
	쪽파 (종구 직파)	종구로 번식하므로 캐서 잘 말려 놓는다.	3, 8	6
	시금치 (직파)	산성토양에 약하다. 석회분이 도움이 된다.	3, 9	6~7
	고수 (직파)	씨앗을 밧돌에 갈아 쪼갠 뒤에 습한 땅에 뿌린다.	3, 9	8
	배추 (직파)	개성배추는 봄 얼갈이로 잘 자란다. 월동한 배추는 6월 즈음 채종한다.	3, 8	

분류	작물 (파종방법)	특징	시기(월)	
			씨넣기	씨갈무리
깨 류	참깨 류 (육묘, 직파)	간격을 30cm정도 두고 심어야 한다. 맨 아래의 꼬투리가 벌어지면 바로 베어 거두어 놓고 말린다.	4, 5	9~10
	들깨 류 (육묘, 직파)	옥수수를 베기 전에 심는 이어짓기를 한다. 깃잎은 쌈채소, 저장식품으로 좋다.	5, 6 이후	10~11
열 매 채 소	가지 (육묘, 직파)	꽃이 필 무렵 재를 뿌리 주변에 한 줍씩 넣어준 다. 수확량이 많다. 노랑게 익은 열매를 늦가을까지 두었다가 채종한다. 토종가지 찢 때 검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	3	늦가을
	오이 (육묘, 직파)	늦가을까지 열매를 맺는다. 넝쿨을 땅바닥에 두면 더 잘 크다.	3, 7	
	참외 (육묘, 직파)	초기 두 줄기만 남겨 놓고 키운다. 열매가 흠에 닿지 않도록 판자로 깔아주어야 한다.	3	8
	호박류 (육묘, 직파)	밑거름을 잘 주어야 한다. 어릴 때는 풋호박으로 먹는다.	3, 4	8~10
	박류 (육묘, 직파)	7월 초에 꽃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므로 그 전에 방제가 필요하다. 꽃 속의 벌레 방제를 위해 목초액 300배 희석 액 을 분사해주면 도움이 된다. 박의 표면에 바늘을 찌러보아 들어가지 않을 때 채종한다.	4 초 육묘	
	수세미 오이 (육묘, 직파)	11월까지도 열매가 열린다. 채종하고 남은 씨방을 수세미로 쓴다.	3, 4	11
	여주 (육묘)	씨앗이 딱딱하므로 돌출된 부분의 끝을 조금 잘라 육묘를 하는 것이 좋다. 빨갈게 속이 있으면 채종. 풋 열매일 때 썰어 말 려서 차로 마신다.	3	7, 8
	고추 (육묘, 직파)	2~3월초에 육묘한다. 서리 내릴 때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2	8

분류	작물 (파종방법)	특징	시기(월)	
			씨넣기	씨갈무리
콩류	붉은꽃 완두	추위에 강해 이른봄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꼬투리째 먹을 수 있는 콩이다.	3, 11	6 중
	얇은뱅이 강낭콩 (직파)	밥밀콩, 백설기 떡에 넣어 먹으면 맛있다.	3	6~7
	강낭콩 (덩굴, 직파)	늦가을까지 열린다. 흰 넝쿨, 호랑이넝쿨콩이 가장 늦다.	4~5	10~11
	땅콩 (육묘, 직파)	크기가 작으나 매우 고소하고 꼬투리가 많이 열린다.	3, 4	10~11
	작두콩, 제비콩 (직파)	덩굴이 3m까지 자란다. 상강 이후 밀등을 잘라둔 다음 거둔다.	4	11
	동부류 (육묘, 직파)	덩굴 콩이므로 수수, 해바라기와 사이짓기를 하면 좋다. 단맛이 많아 벌레도 매우 좋아한다. 잘 말려야한다.	5	10~11
	옥수수류 (육묘, 직파)	교잡율이 높아 다른 종을 가까이 심으면 섞인다. 검은 찰옥수수는 만생종이다.	4~5	8~10
	수수류 (육묘, 직파)	토종은 대체로 키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센 곳은 지지대를 해주면 좋다. 동물모이용, 빗자루제조용, 잡곡용 등 활용도가 높다.	4~5	10~11
	팥류 (직파)	반 넝쿨성이고 자람세가 크다. 간격을 넉넉히 잡아야한다.	6 이후	10~11
	녹두류 (직파)	녹비작물로도 활용한다.	6 이후	10~11
기타 콩류 (직파)	순치기는 반드시 꽃이 피기 전에 한다.	6 이후	10~11	

### 3. 재배 방법<sup>1)</sup>

#### 가. 온고이지신<sup>2)</sup>

토종작물의 재배 방법은 일반 농가에서 거의 사라졌다. 60~70대 농민은 제초제나 화학비료 없이는 아무 것도 수확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는 팔 데가 없고 크기가 작거나 볼품없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다고 믿는다. 결국 토종작물을 재배해 본 분에게 들은 경험을 밑바탕으로 각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시행착오를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 완간한 [온고이지신] 총 10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농서 속의 재배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고농서 안의 시대와 다른 기후로 때론 혼란스러웠으나 많은 참고가 되었다.

#### 나. 생명역동농업

토종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씨앗을 농부가 직접 받아 이듬해에 그 씨앗을 바탕으로 농사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씨앗이 지닌 생명력이 퇴화하지 않고 우주의 기운을 강하게 간직하며 수확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역동농법의 파종 달력, 증폭제 사용을 반드시 지켰다. 우리의 고농서에도 12지를 바탕으로 파종 날짜를 지목해 놓은 내용이 매우 많다. 짐작키로는 고대 농경생활을 시작하던 인류에게 별자리는 농사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지식이었다고 믿는다. 고인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거나, 첨성대, 혼천의 등은 아주 좋은 증거로 남아있으나 근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는 박제된 유물이 되었다. 독일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1923년 농민들을 위한 농업강좌를 6일 동안 진행하면서 천체 우주의 태양, 달, 별들의 운행이 농사에 어떤 분명한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었다.

1) 온고이지신, 생명역동농업, 퍼머컬처를 참고하여 재배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록할 때 설명을 달아 놓기로 한다.

2) 온고이지신 내용을 포함한 고농서의 농업기술은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한국전통지식포털 홈페이지 [전통 농업기술-농업기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http://koreantk.com>)

세계 곳곳에서 생명역동농법(Bio Dynamic Agriculture)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100년의 전통 속에 슈타이너가 알려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온 농민들이 증거들을 보이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세계 50여 국가에서 데메터 인증(생명역동농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유기농을 넘어선 유기농으로 그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생명역동농업을 연구하고 실천한 평화나무농장(경기 포천군) 김준권 대표의 도움 아래 생명역동농법 달력과 증폭제를 사용하였다.

#### 다. 퍼머컬처 [가이아의 정원]

퍼머컬처에 대한 공부가 아직 부족하나 ‘가이아의 정원’이란 책이 작물 배치, 퇴비 상태, 작업 동선 등 공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연구 내용

‘연구방법의 재배 방법’ 세 가지를 큰 갈래로 하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1년 농사의 흐름으로 기록한다.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 순으로 진행한다.

### 1. 겨울

‘농사의 시작은 가을부터’라는 말이 있다. 생태적인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모든 갈무리가 끝난 초겨울에 이듬해 농사 준비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1) ‘가을갈이는 깊게, 봄갈이는 얇게’ (온고이지신 2권 농사일반편)

풀 중에도 조밀하게 나오는 바랭이, 비름은 잡기가 매우 어렵다. 잡초는 씨앗 생명력이 10년 이상 가는 것도 많다.

가을에 땅을 깊이(1m가량) 파고 두둑을 높이 짓는다. 고랑에는 옥수숫대, 수숫대, 들깨대 등 거친 부산물로 덮어 두고 두둑에는 볏짚을 덮어둔다. 볏짚을 덮기 전에 신문지를 1차로 덮고 볏짚 덮기를 하면 이듬해 풀 잡는데 더 효과적이다.

두둑이 높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작물로는 양파와 양파 사이의 땅콩, 헛골(밭고랑)에 드문드문 상추를 심을 수 있다.

2) 툄 밭<sup>3)</sup> 덮기

겨울에 밭 흙을 헐벗은 채로 두지 않는 원칙을 가진다. 낙엽, 폐 종이상자 등을 덮어 보았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볏짚을 덮은 경우였다. 볏짚을 겨울에 덮어 놓은 곳은 이듬해 흙의 빛깔부터 달랐다. 양간지풍<sup>4)</sup>으로 낙엽은 모두 날아갔고, 볏짚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일단 신문지를 한 겹 깔고 볏짚을 덮은 뒤에 한랭사로 덮어 날아가지 않게 고정했다.



[그림 2] 툄 밭 볏짚 덮기

잡초 발생을 막기 위해 부직포 등을 덮어주고, 고랑 통로를 넓혀 리어카가 다녀야 하는 수확 작업이나 제초를 위한 작업을 용이하게 했다. 밭 전체를 툄 밭으로 하기보다는 자주 돌봐야 하는 쌈채소, 잎채소, 허브 종류를 심는 용도로 몇 개 만든다면 활용도도 높고, 미관상으로도 훌륭하다.

3) 비닐하우스 두 동 중 한 동(50평)을 시트피복(sheet mulching)했다.<sup>5)</sup> 이곳에 11월 말 붉은꽃완두를 파종하면 이듬해 4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하다. 완두는 많은 콩 가운데 가장 추위에 강하고 또 수량이 많으며 여무는 시기도 빠르다. 이른 봄,

3) 고랑과 두둑을 확실히 구분 지어 주기 때문에 밭 정비에 매우 효과적이다. 부산물들이 계속 덮일 수 있어서 좋고 농부가 작업을 할 때 속도감이 있어 좋다. 단, 고랑으로 차지하는 부분의 잡초를 매는 일은 작물을 재배하는 일보다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강원 영동 지방인 양양~고성군 간성읍 구간에 부는 강풍으로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풍속이 빨라져 40m/s의 강풍이 불기도 한다.  
 5) 시트 피복은 토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경운을 하지 않고도 잡초를 근절하고 토양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신문지를 깔고 피복재를 덮어주는 방법이다.(가이아의 정원 4장 흙살리기 p168)

열매 작물이 없을 때에 아주 요긴할 뿐 아니라 부산물은 퇴비로 훌륭하다.(온고이지신 제9권 초본류 2, 73p)



[그림 3] 붉은 꽃 완두

4) 겨울이 지나야 채종할 수 있는 작물로는 상추, 배추, 무, 흰 당근, 붉은 당근, 대파, 쪽파 종류 등이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교잡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만 선택하거나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5) 겨울에 어떻게 땅을 덮어 주었는지에 따라 봄 풀 잡기와 파종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2. 봄

연구를 진행하며 일부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몇 가지 작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토종고추가 냉해를 입었다. 일반 재배와 같이 1월 25일 촉을 틔운 뒤에 상토에 넣어두었다. 3월 중순까지 떡잎과 본 잎이 나올 때 관리가 매우 힘들어서 3월 중순 비닐하우스에 이중터널을 하고 옮겼으나 갑작스런 한파가 들이닥쳤다. 결국 4월 18일 촉을 틔워 다시 파종한 풍각초를 비닐하우스에서 키워 성공했는데, 전기열선 시설이나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절감했다. 토종 고추는 곡우 전후에 직파해서 늦게까지 수확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꾸러미를 만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어 내년 작기에 다시 파종을 해보기로 했다.

〈표 2〉 파종 시기별 작물 일람표

종류	작물	시기(월)			비고	
		파종	아주	수확		
잎 채 소	담배상추	12~2	3	3~5	토종상추 중 더위에 약해 꽃대가 일찍 올라옴	
	치마상추	3	4	4~8	8월 말까지 수확 가능	
	알로에상추	3	4	4~8	8월 말까지 수확 가능	
	너브내상추	3	4	4~6	더위에 약함	
	근대	3, 8 곧뿌림		4~5 9~11	가을 근대가 재배에 용이함	
	아욱	3, 8 곧뿌림		5~6 9~11	기온이 올라가면 바로 꽃대 를 올림. 부지런히 순을 따주 면 조금 늦출 수 있음	
	케일	3, 8	4	5, 10	조금 더워질 때 총해 발생	
	삼층거리 대파	7 주아심기		4~7	처음 잎을 올린 다음 뿌리를 뽑지 않고 밑동을 잘라 수확 하면 2번 수확 가능	
	한로파	3, 8초	4, 8	5	월동 파는 꽃이 피기 전 수 확. 가을 파종한 것은 김장철 에 수확	
	토종대파	3, 8초	4, 8	5	꽃 피기 전 수확하고 몇 부 리 남겨 채종	
	돼지파	8	8	4, 11	쪽파의 종류 연중 2번 수확	
	바질	4	5	7~8	따뜻해야 발아함	
	구억 개성배추	3, 8	4, 8	6, 11	봄에는 열갈이용 가을에는 김장용으로 수확	
	무	3, 8	4, 8 곧뿌림	5, 11	봄에는 열무 가을에는 김장용으로 수확	
	부추	매년 저절로 올라 옴			4~7	
	나물류(파드 득,머위,달래, 돌나물,쑥)	밭 가장자리와 숲에 자란 것 채취			4~6	파드득: 봄, 가을 수확 머위: 새잎, 꽃, 줄기 3~7월 초까지 수확
	엄나무순,오갈 피순,뽕나무 순,땅두릅,	밭 가장자리 나무에서 채취			4	

종류	작물	시기(월)			비고						
		파종	아주	수확							
열매 채소	가지	3	입하 후 (5월 5일) 아주심기 필수	7~10	껍질에 윤기가 있을 때 가장 먹기 좋음. 이후 단단해짐						
	오이				풋오이부터 늙은 오이까지 먹을 수 있음						
	먹참외	4		8~10	10	참외 꿈무늬에서 단내가 나면 수확함. 사과참외는 꼭지 부근이 살짝 갈라지면 수확해서 2~3일 숙성한 뒤에 먹으면 맛이 좋음					
	개똥참외										
	사과참외										
	청참외										
	개구리참외										
	양양수박	4		10	10	정식명칭은 아니며 밭에서 저절로 자라 붙인 이름임					
	흑수박					크지 않은 상태로 장마철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았음					
	조롱박					11	껍질에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할 때 수확				
	장대박					7~11	7~11	껍질이 연두색일 때 껍질을 벗기고 길게 썰어 말림. 건조 시 비가 오면 건조기에 말려 곰팡이를 예방함			
	애호박							교잡이 활발하여 50m 이상 간격을 두고 심음. 늙은 호박은 표면에 하얀 분이 생기면 수확함			
	되호박							8	8	총이 꽃에 알을 낳을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함	
	푸른대왕호박									채종용 토종은 길지 않고 통통함	
	멧돌호박					1	씨넣기	7~11	토종 고추류는 탄저병에 걸려도 건조한 날씨가 되면 건강한 열매를 생산함		
	단호박								4	4	열매가 5~7cm일 때 수확하며, 늦으면 매우 질김
	여주										3
	풍각초	4		씨넣기	9				풋열매일 때 청을 담구면 기침에 효과가 있음		
	음성재래고추										
	빵빵이초										
수비초											
오크라	4										
토마토(산마르자노, 쭈글이, 찰, 방울)	3	중순 씨넣기	입하 후 (5월 5일) 아주심기	7~11	7~11						
오이수세미	4	씨넣기	아주심기	9	9						

종류	작물	시기(월)			비고
		파종	아주	수확	
열매채소	얼룩배기찰	4 씨넝기	입하 후 (5월 5일) 아주심기	7~9	중생종으로 찌먹기 좋음
	옥수수			8	병튀기용으로 적합함
	노랑메옥수수	6 직파		10	만생종으로 추석 무렵 수확하고, 찧기와 당도가 우수함
	검은찰옥수수				

다음으로 콩과 토마토가 노린재 피해를 입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과 과습으로 노린재의 개체 급증이 원인으로 판단되고, 노린재 포집기도 사용해 보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노지의 콩과 토마토는 피해가 막심했으나 습도 조절이 가능했던 비닐하우스에서는 대왕서리태 2.3kg를 수확하였고, 토마토도 일부 수확했다.

직파를 할 때 작기가 짧고 모종관리가 어렵거나 늦서리 피해가 있을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호박, 오이 등 열매채소를 심는 것이다. 젖은 수건에 촉을 킁운 다음 4월 중순~말경 밭 흙에 심어 놓고 벧짚이나 부산물 등을 덮어준다. 씨앗을 여럿 심었다가 튼실한 개체만 남기고 꺾어주면 된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씨레질의 중요성이다. 밭농사는 씨레질에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년 벧짚 등을 꾸준히 덮어 놓은 밭에서는 씨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육묘 받이나 직파를 할 경우 꼭 필요하다. 씨레질의 중요성은 고문헌(6)에서도 엿볼 수 있다.

6) 『임원경제지』, 『종시직설』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종시직설(種蒔直說)
쟁기로 밭을 가는 것은 도인(導引)과 같고, 김매기는 머리를 빗고 목욕하는 일과 같고, 거름은 약과 같고, 물을 놓는 것은 싹틔움을 뜨는 일과 같으니, 양생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양묘(養苗: 싹을 기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옛 농사법에는 한 번 갈고 여섯 번 고르게 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만 깊이 가는 줄만 알고 흙을 부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부수는 일이 불충분하여 흙이 거칠고 덩이가 많으면 비록 파종한 뒤에 싹이 나더라도 뿌리가 흙덩이 위에 있어서 흙에 밀착되지 못하므로 가뭄해를 견디지 못하고 곧 말라 죽으며 벌레해도 잘 입는다. 부수기를 충분히 하면 흙살이 가늘고 또 실하게 버티고 있어서 뿌리가 가늘고 실한 흙에 뻗으며 또 골개로 다지면 뿌리와 흙이 잘 붙어서 자연히 가뭄을 견디어내고 병해도 생기지 않는다.

1) 발아율

자가 채종하면 토종씨앗의 발아율은 90%가 넘는다. 2018년 발아율이 매우 떨어지는 작물에 채종의 문제가 있었다. 파종한 양과 아주심기한 양, 수확량의 비교를 통해 토종씨앗의 발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2) 수확량 감소

축분 퇴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나 토양 검사에서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로 나와 (주)흙살림의 균배양체만을 퇴비로 사용했는데(총 800kg) 2019년에는 자가 제조 액비와 소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표 3〉 작물별 파종 후 수확 내용

종류	작물	파종(구)	아주심기	수확량(kg)	비고
앞 채 소	담배상추	15	15	8	
	치마상추	10	10	3	
	알로에상추	9	9	3	
	너브내상추	20	3	채종용	채종용
	근대	17가을파종	15	2	
	아욱	자연발아	20	5	
	케일	15	15	2	벌레 먹음
	삼층거리대파	17년 파종, 자연발아	30	10	
	한로파	17가을파종	40	25	
	토종대파	17봄파종	10	5	
	돼지파	17가을파종	3kg		일손 부족, 봄 채취 생략
	바질	72	25주		개화바름(폭염) 사이짓기용
	열 매 채 소	구억배추	217	70주	
가지		144	92	(10월)140	
오이		105	14	40	
먹참외		60	3	6개	
개똥참외		48	5	25개	
금개구리참외		35	7	15개	
사과참외		36	4	18개	
청참외		자연발아	2	8개	
무등산수박		24	15	小 4개	
흑수박		3	2	2개	

종류	작물	파종(구)	아주심기	수확량(kg)	비고
열매채소	조롱박	6	5	5개	
	대박	1	1	1개	
	돌호박	2	2	2개	
	푸른대왕호박	10	7	7개	
	멧돌호박	15	15	5개	
	단호박	49	8	12개	
	여주	21	2	채종용	
	풍각초	100	50		곡우 무렵 재파종
	영양고추	250		실패	
	음성재래고추	250	5	2	모종 때 냉해,
	임실재래고추	150		실패	목초액 살포
	빵빵이초	150	10	3	실패
	수비초	50	3	채종용	
	오크라	68	17	10	
	산마르자노-토마토	30	17	10	
	쭈글이 큰 토마토	169	138	25	
	찰 토마토	121	30	15	
	타이거랠라-				
	방울도마토	64	50	8	
	십각수세미	자연발아			
얼룩배기찰옥수수	382	288	40		
노랑메옥수수	30	30	3	뽕튀기용 건조	
검은찰옥수수	직파(100g)		15	10.4. 1차 수확	
열매채소 콩류	얼룩얇은뱅이	30	30	5	채종용이나 좀 더 나눔
	강낭콩			15	
	붉은꽃완두	직파(50g)			
	대왕서리태	직파(30g)			
	아주까리밤콩	직파(50g)			
	흰동부	50	30		하우스 재배
	붉은동부	50	50		하우스 재배
	어금니동부	35	35		하우스 재배
	개파리동부	50	50		하우스 재배
	검은동부	직파(100g)			옥수수 함께 짓기
	올들개	72	72		태풍 피해
	검은팥				채종용
	노랑팥				채종용
	붉은팥				채종용
노랑녹두				채종용	
올녹두				채종용	
갓끈동부	105	50	3	해바라기 함께 짓기	

종류	작물	파종(구)	아주심기	수확량(kg)	비고
열매 채소	얼룩얇은뱅이	30	30	5	채종용이나 좀 더 나눔
	강낭콩				
	붉은꽃완두	직파(50g)		15	
	대왕서리태	직파(30g)			
	아주까리밤콩	직파(50g)			
	흰동부	50	30		하우스 재배
	붉은동부	50	50		하우스 재배
	어금니동부	35	35		하우스 재배
콩류	개파리동부	50	50		하우스 재배
	검은동부	직파(100g)			옥수수 함께 짓기
	올들깨	72	72		태풍 피해. 쓰러짐.
	검은팥				채종용
	노랑팥				채종용
	붉은팥				채종용
	노랑녹두				채종용
	올녹두				채종용
뿌리 채소	갓끈동부	105	50	3	해바라기 함께 짓기
	자주감자	2.5kg		15kg	
	속 노랑 분홍감자	2.5kg		17kg	
	수미감자	500g		3kg	하우스 안
	붉은 당근	17파종		봄 수확×	월동감자 합산
	흰 당근	17파종		봄 수확×	
	양파	72	72	7	
꽃	토종 무	직파(10g)			
	토란	직파(50g)			
	해바라기	34	34		씨앗
유실수	캐모마일				꽃차
	토종박하				잎 채취
	살구			5	
	대추			10	1차 수확
	감			20	
	알프스오토매			20	벌레 피해
	매실			15	매실 청 담음
앵두			3	술 담음	
보리수열매			0	일손 부족 방치	
호두			0	해겉이	

## 다. 섞어짓기와 사이짓기

섞어짓기와 사이짓기는 생태적 밭을 만드는 데 핵심이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적합한 작물들을 직접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했다.

1) 가지, 토마토 6~10주 간격에 바질을 반드시 심는다. 벌레도 막아주지만 바질은 앞으로 말리거나 페스토 등을 만들어 꾸러미에 넣을 수 있다.



[그림 4] 가지(좌), 바질(우)

- 2) 수박, 배추 옆에 심는 삼층거리파 또는 쪽파는 병충해를 방지해 준다.
- 3) 열매채소 옆에 심은 한련화는 벌과 나비를 유인해서 수정을 도와준다.
- 4) 옥수수, 호박, 검은 동부로 이루어진 세 자매 농법<sup>7)</sup>을 활용한다. 토종 옥수수대는 토종 검은 동부의 덩굴이 타고 올라가는 지지대가 되고, 수확시기가 잘 어우러진다. 호박은 넓은 잎으로 땅바닥을 덮어서 잡초를 억제하므로 옥수수 10~15주 간격으로 띄어 심는다.

---

7) '세 자매'라고 불리는 식물 3종 세트가 있다. 이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함께 심곤 했던 옥수수, 강낭콩, 호박을 말하며, 이 식물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이익을 가져다준다.(떠머컬쳐 가이아의 정원 8장 p333)



[그림 5] 한련화(좌), 검은 찰옥수수(우)

5) 갓끈동부는 열매를 일찍 맺고 덩굴의 세력이 강해 해바라기와 같이 심기 적합하다. 해바라기는 뿌리의 정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므로 밭의 적절한 장소를 찾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 감자와 얇은뱅이 강낭콩은 심고 수확하는 시기가 잘 맞는다. 영양을 주고받으며, 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림 6] 해바라기와 갓끈동부(좌), 콩밭(우)

7) 쪽파, 돼지파는 배추의 벌레를 파의 향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토종 배추는 초기 벌레가 먹더라도 포기가 차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초기 벌레를 예방하고자 하면 한랭사를 좀 씌웠다가 벗겨주는 방법을 써도 좋은데 이미 벌레들이 많이 생겨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

8) 고추 사이에 드문드문 옥수수나 고랑에 자귀나무 가지를 깔아두는 방법도 있

다고 하나 직접 실험하지 못했다.

## 라. 꽃밭

퍼머컬처에서는 작물뿐 아니라 꽃을 함께 가꾸어 농부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매우 중점을 둔다. 농부 자신과 궁합이 맞는 꽃이나 의미가 있는 꽃밭, 꽃차를 만들 수 있는 꽃, 허브들을 동선을 따라 만들어 둔다.

1) 캐모마일: 생명역동농법에서는 증폭제 503번의 원료가 되는 꽃이고 말려서 꽃차를 만들면 꾸러미에도 넣을 수 있고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차이다.

2) 부용화: 토종작물을 배웠던 마을에 있던 꽃이라 밭 입구에 심었다. 생명력도 좋아 한번 심으면 10여 년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꽃도 아름답다.



[그림 7] 캐모마일(좌), 부용화(우)

3) 꽃무릇: 두더지가 다니는 길목에 심으면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2018년 가을에 종구를 얻어 2019년에 심었다. 그동안은 페트병으로 만든 두더지 퇴치 바람개비를 활용했고 효과가 있었다.

4) 사랑초: 야생화이고 나무 밑에 심으면 초봄 일찍 분홍의 꽃을 피워 농부의 눈을 행복하게 해주는 꽃이다.

### 3. 여름

6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풀과의 한 판 씨름에 들어간다. 지난해 벚짚을 덮어 두었던 틀 받은 2번 정도 풀을 잡아주니 무난히 지나갔다.

가을에 미처 벚짚을 깔아주지 못한 곳은 봄에 벚짚을 깔아주어도 풀의 기세를 쉬이 꺾을 수 없다. 옆에 깔린 벚짚 사이로 올라온 풀을 제거하기가 오히려 번거로웠다. 이때부터는 낮으로 베어 깔아주었는데, 신문지로 한 겹 덮어 둔 곳은 확실히 가을까지 풀을 잡을 수 있었으나 벚짚만 있는 곳은 한여름 폭염을 지나면서 거의 풀 잡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열매 작물은 다음과 같이 돌보았다.

1) 가지: 첫 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궁이 재를 한 줍씩 뿌리 주변에 뿌려준다. 병충해도 막아주고 열매가 배나 더 열린다. 아래쪽의 넓어진 잎은 너무 그늘지지 않도록, 태풍이나 바람에 균형을 잃고 쓰러지지 않도록 따 준다.(온고이지신 제9권 초본류, p311, p315) 두 번째 즙 열린 열매 중에 일찍 색이 바랜 열매는 따지 않고 두면 가을에 노랗게 변하고 그것이 바로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열매이다.

2) 박과 작물: 박꽃은 저녁에 피고 호박꽃은 아침에 피기 때문에 교잡이 되지 않는다. 층이 꽃이 피었을 때 꽃 속에 알을 낳아 놓으면 가을에 걸은 멀쩡해도 속엔 이미 애벌레가 생겨 있고 겨울엔 점점 굵게 되는데 목초액을 500~700배 희석하여 분무기로 한번 씩 뿌려주면 건강한 박을 얻을 수 있다. 여름에 풋박을 따서 박나물로 말려 두어도 되고, 낙지와 함께 끓여먹는 박속탕은 여름철 보양식이다. 돼지를 살찌우는데 박나물이 최고라 하며 박씨 기름으로 초를 만들면 불빛이 밝다고 한다. (온고이지신 제9권, p387)

3) 채종: 배추, 무, 당근, 상추 씨앗 채종은 여름 장마 전후에 이루어져 시기가 겹친다. 비가림 시설이 있다면 시설 내에서 채종하는 것이 좋고, 없다면 너무 기다리다가 장맛비에 씨앗을 밀리기 일쑤니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배추나 무는 꼬투리가 2/3 정도 갈색으로 바뀌면 거두어서 말려도 된다.



[그림 8] 배추씨(좌), 무씨(우)

## 4. 가을

가을은 씨앗 갈무리의 계절이다. 가지, 채종을 두어 번 해 보면 어떤 씨앗이 좋은 것인지 금방 알게 된다. 속이 통통하게 차 있어야 하며, 빛깔이 균일하고, 모양도 찌그러지지 않아야 한다.

오이, 참외 씨앗은 물에 담근 후 가라앉는 것으로 골라 그늘진 곳에서 말린다.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용기보다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씨앗 갈무리는 아무리 정성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무리에 따라 이듬해 발아율, 수확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견출지를 준비해서 거름망에서부터 채종일과 함께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여러 종일 경우 뒤섞이기 일쑤다.

김장 채소와 씨감자를 파종하고 나면 '겨울 준비'에서와 같이 땅 덮는 작업을 진행하면 일 년 발농사가 마무리된다.

## 5. 토종꾸러미

### 1) 꾸러미 시작 동기

재배하는 농부와 먹는 소비자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소비자의 습관, 의식이 깨이지 않으면 농촌의 생명 살림은 불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선택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꾸러미이다.

토종씨앗 채종을 목적으로 하니 소량 다품종 재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산 형태는 꾸러미 직거래를 통한 판매가 가장 적합하다. 계약 재배 형태로 꾸러미 회원들은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농산물값을 선입금하고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을 받는 구조를 가진다. 3년여 하다 보니 꾸러미 횟수는 대체로 월 2회가 적절했다. 매주 꾸러미는 농민에게나 소비자에게나 부담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 2) 꾸러미 장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토종작물이라 종류와 조리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데, 꾸러미 배송시 보내는 편지를 통해 소비자와 돈독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농부가 스스로 적정 회원 수를 정해야 하는 데 이는 농장 규모, 작물 생산량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현금 수입을 앞세우다 보면 초반에 무리하게 회원을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꾸러미 운영이 어렵다. 농부의 주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농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

페이스북의 '토종이 자란다' 농부 팀과 매년 한 번의 공부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타지역 몇 분의 농산물 도움을 많이 받았다.([표 4] 참고). 발작물 위주의 꾸러미이므로 쌀은 선수 계약으로 구입했다.

농부로서의 자긍심, 가족 같은 격려, 농사를 매개로 맺어지는 깊은 관계는 단순히 수입의 경우를 넘어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애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농장이 좀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 만남의 날이나 수시로 방문하며 진정한 '함께 짓기'를 이를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연초 재배 계획, 작물의 배치도 운영 계획 등을 알리고 지속 여부를 묻고 꾸러미 회원을 받았다.(현재 10가정 모두 2~3년 지속적으로 이어 옴)

## 3) 꾸러미 단점

포장 및 택배 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토종꾸러미에서는 비닐, 플라스틱, 과포장 등을 최소로 하며, 종이봉투, 신문지,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데 채소류의 신선도, 탄소 발자국 등 늘 마음에 걸리는 문제이다. (깨지기 쉬운 과일은 생수병 재활용, 짬 채소류는 종이상자에 넣어 예냉하나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가공품 중 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회수 후 재사용을 호소하지만

자발적인 회수가 아직은 잘 되지 않고 있다.

#### 4) 꾸러미 경제성

10가정 꾸러미, 상·하반기 각 10번을 계획하였으나 하반기는 폭염으로 8회로 합의하여 진행하였다. 각 가정당 30만 원(분기별)×2=연 60만 원, 총 600만 원의 회비를 마련하였고, 지출은 200만 원 수준이었다.

지출은 꾸러미를 장만하기 위한 가공비, 채소 작물 외에 곡물(밀, 쌀 등) 등을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한 내역만 기록하였다. 밭 임대료는 농가와 맞교환하였기에 추가 지출은 없고, 농자재 중 (주)흙살림의 유기질 퇴비, 해충 포집기 등은 본 연구 지원금과 유기인증 농가에 대한 군 지원금이 있어 따로 정산하지 않았다. 또한 농부의 임금은 자가농이고 인건비로 정산하기 위한 잣대를 마련할 수 없어 일단 생략했다.

2019년은 채소의 수확량이 늘어남으로써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농산물의 양은 줄어들었다.

[표 4] 연중 꾸러미 발송 내역(2018)

날짜	내용	소요경비내역(만 원)	지출(원)
3/29 (안내)	꾸러미 가입안내 편지_ 재배 계획, 회비 입금 안내 냉이, 버섯 소량	-	-
4/3 (1회)	표고버섯, 삼층거리대파, 돼지파, 부추, 곰보배추, 떡볶이 떡	떡 1 / 택배 4	50,000
4/18 (2회)	산마늘, 눈개승마, 머위, 엄나무순, 오가피순, 부추, 삼층거리파, 떡볶이떡	산나물 12, 떡 2, 택 배 2.8	168,000
5/8 (3회)	쌈채소(담배상추, 치마상추, 알로에상추, 케일, 셀러리), 아카시아 꽃, 봄배추, 한로파, 표고버섯, 파드득나물, 찰떡(진주냉쿨강낭콩, 검은올타리강낭콩, 자주냉쿨강낭콩, 밤, 주먹참쌀)	우체국 0.45 (떡, 파드득, 버섯) 떡 3.5, 택배 3.6	75,500
5/24 (4회)	쌈채소, 썩가래떡, 완두, 노랑메옥수수병 튀기, 캐모마일꽃, 박하, 열무	떡 4, 빵튀기 0.5, 택배 4.05	85,500
6/11 (5회)	쌈채소, 양배추, 우리밀국수, 당근, 완두, 명이장아찌, 보리수열매, 앵두	양배추 2.5, 국수 6, 택배 4	125,000
7/6 (6회)	쌈채소(호박잎, 치마상추, 깻잎) 얇은뱅이밀가루, 들깨가루, 매실청, 감자, 양파, 마늘, 한로파, 살구	들깨가루 2.5 얇은뱅이밀 5 마늘 8, 택배 4	195,000
7/13 (7회)	발송 내역 분실	택배 4	40,000
7/26 (8회)	한로파, 노각, 감자, 고추, 오크라, 토마토, 복숭아	복숭아 2.5, 택배 4	65,000
8/8 (9회)	가지, 토마토, 조선대파, 오크라, 노각, 금개구리참외, 먹참외, 얇은뱅이강낭콩, 어금니동부	택배 4	40,000
8/16 (10회)	토마토, 참외, 가지, 조선대파, 얼룩배기찰옥수수, 노각	포장 5.5, 택배 4	95,000
상반기			939,000

날짜	내용	소요경비내역(만 원)	지출(원)
9/4 (11회)	가지, 노각, 갓끈동부, 오크라, 미니사과, 개똥참외, 금개구리참외, 토종고추	택배 3.2	32,000
10/4 (12회)	감, 대추, 검은찰옥수수, 오크라, 가래떡, 고추, 가지, 애호박(단호박)	떡 3, 택배 4.4	74,000
10/15 (13회)	한로파, 가지, 밤, 애호박, 십각수세미, 볶음참깨, 말린 가지, 해바라기	밤 4, 택배 3.2	72,000
11/5 (14회)	고구마, 약호박, 찹쌀, 강낭콩, 토란, 대 봉시, 모과	고구마, 찹쌀 10.5, 택배 2.8	133,000
11/22 (15회)	떡국떡, 한로파, 무, 양상추, 호박묵나물	떡 3.5, 쌀 5, 양상추 2, 택배 3.2	137,000
12/6 (16회)	무, 양상추, 쪽파, 무시래기, 배추겉절이, 노랑메옥수수병튀기	무시래기, 양상추, 무 5, 병튀기 0.5 택배 3.6	91,000
12/27 (17회) (18회)	오미자청, 매실청, 들기름, 들깨가루, 토 종고추무침, 오이지무침, 고춧잎말린 것, 대추말린 것, 검은찰옥수수병튀기, 영양 찰떡, 수수강정	병 값 3.4, 들기름 병 값 2.16, 떡, 들깨가 루 수공비 11.1, 들 깨구입 10, 토종고추, 오이지 등 12, 병튀 기 1, 택배 3.2	428,600
하반기			967,600
합계			1,906,600



[그림 9] 연중 꾸러미 사진(3~12월)

#### 4. 결론

첫째, 토종작물의 작부 체계를 만들었다. 2016년부터 강원도에서 토종작물 재배를 진행해 왔으며, 이 지역의 풍토, 기후 등에 잘 적응되었고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작물도 선정할 수 있었다.(15종의 토종작물)<sup>8)</sup>

둘째, 밭작물 중심의 꾸러미를 만들었다. 보통 꾸러미 안에는 두부, 달걀 등이 필수로 들어있는데 귀농한 농가에서 재배하는 밭작물을 중심으로도 연중 채소 꾸러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2016~2018년 계속 꾸러미 공급)

셋째, 생태적 농사의 사례를 만들었다. 본 농장의 꾸러미 수입으로는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부족하지만, 귀농한 농가가 고액의 비용 투자 없이 자급 농사로 실현 가능한 생태적 모델의 예시가 되었다.

본 연구 성과의 기대효과는 첫째, 학교급식 공급이다. 양양군 내의 학교급식 농산물 80%가 가락시장 경매를 통해 납품되는 현실이나 2018년 11월부터 양양군친환경연구회 농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학교급식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농장에서 3년여 재배해 온 토종작물 50여 종은 일반작물에 견주어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아 지역 친환경농가들과 협의하여 대량생산을 이루면 채소부터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

둘째, 건강한 농사이다. 귀농한 농민이 생태적 농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풀 관리와 연중 작부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토종 종자로 짓는 농사는 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관행적 화학농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작물의 재배, 수확, 채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의존적이지 않은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이며, 해가 갈수록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농사를 지을 방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

셋째, 농사는 궁극적으로 밥상공동체를 이루어야 완성된다. 꾸러미라는 직거래 방식을 통해 농민, 소비자의 공동체적 의식 전환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관을 공유하며 사회 정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2~3농가가 한 팀이 되어 생태계의 회복, 건강한 식생활을 견인하는 농업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시도가 되기를 염원한다.

8)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러시아의 다츠니키 농장을 들 수 있는데 도시 근린 1ha의 복합 영농을 통해 놀랍게도 45% 가까운 신선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1. [고농서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총 10권.
- 루돌프 슈타이너. 2014.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 변종인. 평화나무 출판사
- 토비 헤멘웨이. 2014. 『가이아의 정원』. 이해성·이은주, 들녘.
-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koreantk.com>.

## [부록]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키울 수 있는 토종작물

1. 부추: 한겨울에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아도 매우 잘 자란다.
2. 담배상추: 하우스 안에서 충분히 월동하고 꽃대도 늦어 수확에 도움이 된다.
3. 치마상추: 장마철에도 잎을 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종류이며 겨우내 비가림 정도면 얼지 않고 수확이 가능하다.
4. 개성배추: 하우스 안에서 월동. 봄에는 열같이배추로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 하우스 안에서는 봄부터 여름까지 이모작도 가능하다.
5. 한로파, 토종 대파: 별도로 덮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월동. 씨앗도 많이 맺힘. 단작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수박, 배추, 무 사이에 연중 재배 가능하다.
6. 삼층거리대파: 거의 방치 수준으로 키워도 잘 자라고 봄에 뿌리째 뽑지 않고 밑동을 자르는 방법으로 수확하면 2번 이상 길러 먹을 수 있다.
7. 쪽파, 돼지파: 쪽파는 종구가 흰색이고, 돼지파는 붉은색을 띠고 쪽파보다 단 맛이 좋다. 가을 재배가 아주 수월하다.
8. 개똥참외: 당도가 높고 식감도 아주 좋다. 비가림으로 과습 방지를 해 준다면 손이 적게 가도 잘 자란다.
9. 청호박: 애호박일 때도 먹고 늙은호박이 되면 크기가 크고 겉은 짙은 녹색으로 하얗게 분이 나면 수확하는 데 속이 진한 주황색을 띠고 있으며 약호박으로 불리기도 한다. 호박죽, 호박즙, 호박 양갱 등으로 만들어 먹는데 맛과 효능이 좋다.
10. 황들깨, 울들깨: 강원도는 대부분 들깨를 옥수수 이어짓기로 하지만 3월중 하우스 안에 심어 잎채소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11. 붉은꽃 완두: 오직 비가림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11월 말~12월 초 곧뿌림 후 이듬해 5월부터 수확할 수 있다.
12. 토종 가지: 3월초 씨넣기를 하고 5월 5일 입하가 지난 다음 아주심기를 한다. 첫 꽃이 필 무렵 방아다리 아래의 잎과 순을 다듬어 주면서 뿌리 주변에 아궁이 재를 한 줍씩 주면 병해도 예방이 되고 열매를 배나 얻을 수 있다.
13. 토종 자주감자, 속노랑분홍감자: 일률적인 수미감자의 추세에 빛깔 있는 감자로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맛도 좋다. 8월 중순쯤 씨감자를 넣어 10월 말 무서리가 내리기 전에 씨를 마련해 놓으면 매우 안정적인 종자도 확보할 수 있다.

14. 얇은뱅이 강낭콩: 두벌 콩으로 남도에서는 재배하지만 강원도에서는 감자 파종 때 사이짓기를 하면 수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병충해나 새의 피해도 없다.

15. 검은찰옥수수: 늦옥수수이며 자루가 조금 작으나 찰지고 단맛이 강하다. 추석 무렵 수확하기 때문에 교잡의 염려 없이 길러 먹을 수 있다.

\* 까치수수, 울무, 개발조 등도 다수확 가능성이 있으나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잡곡은 양양군 내에 도정 시설이 없으므로 쉽지 않다.